

# MY BIBLE

# FIRST

Year A 1분기

## 10. 어리석은 건축자들



### 일요일

**1** 홍수가 끝나고 높이 차올랐던 물이 점점 내려가자 마침내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집을 지었을까요? 정원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각자 일을 나누어서 그 모든 일을 다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빴을 거예요.

하지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 바쁜 시간을 보낸 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바로 사탄도 분주했답니다. 이제 사탄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어요.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죄가 있기 전에는 모두가 완전한 행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법을 지킨다’는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루시퍼가 죄를 지은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믿을지 루시퍼를 믿을지 선택해야 했어요. 하와도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을 믿기로 선택한 후로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성이 되어버렸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권을 뺏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시편 18:6, 107:19**



### 기억절

Mission: 노래로 암송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시편 53:2



**생각하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강요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몹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까요? 네, 그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기억하나요? 여러분이 매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할 때면 마음 속으로 재빨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 월요일

홍수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2** 아기들이 자라 결혼을 하고 더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는 다시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어요. 아마도 많은 어린이들이 노아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홍수와 홍수 이전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을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을 믿는 대신 사탄을 믿기로 선택했을 때 어떻게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는지도 말해 주었을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구해주실 거라는 멋진 약속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해주었을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림으로써 절대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가르쳤을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노아의 후손들은 노아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노아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이 땅에 홍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비난했어요.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노아의 마음은 몹시 슬펐어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어요. 오랫동안 그들은 홍수 이후에도 방주가 멈추었던 산자락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탄은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생각하기:** 노아는 우리의 조상이기도 해요.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 시작하여 노아로부터 이어진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매일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하지 않을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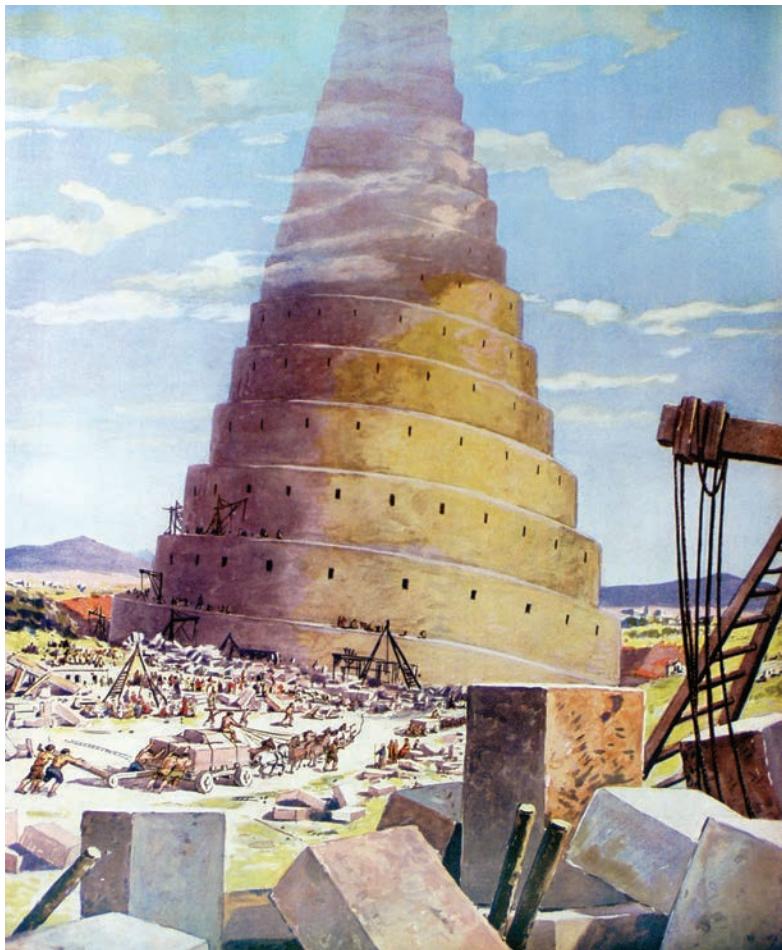
## 화요일

3 셈과 그의 가족은 여전히 산자락에서 지내며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선택했어요.

하지만 함과 야벳의 가족들은 짐을 챙겨 큰 강가의 넓은 평지로 이사했어요. 그곳의 토지는 비옥해서 식물을 잘 재배할 수 있었고 큰 집을 짓고 아무런 방해 없이 우상을 섬길 수도 있었어요. 함과 야벳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골몰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슬프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들은 대담하게 하나님의 뜻과 정 반대되는 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고 으쓱거리며 자만했어요. 이제 그들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모든 준비를 갖추었어요. **창세기 11:4**

그것은 바로 또 다시 대 홍수가 온다 해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아주 높은 탑을 쌓아 올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다시 홍수로 온 세상을 뒤덮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높고 높은 탑을 쌓겠다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너무 자신만만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공들여 높인 탑을 마치 장난감 블록처럼 간단히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했답니다.

날이 지날수록 탑도 더욱 높아져 갔어요. 사람들은 탑 안에 그들이 지낼 수 있는 멋진 집과 우상을 위한 특별한 방도 만들었어요. 탑



을 짓는 이들은 그들의 탑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탑은 곧 뭇가 높아져서 탑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탑 꼭대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화가 힘들어졌어요. 너무 멀어져 필요한 재료를 전달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꼭대기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탑의 중간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고 그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전달했어요. 물론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여 사는 것이 좋은 생각일까요?

 **생각하기:** 크고 복잡한 도시에 살면서 보고 듣는 것, 먹고 즐기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줄까요, 아니면 더 멀어지게 하기 쉬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도시에 살아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해요.

## 수요일

4 한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것이 그들을 위해 좋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큰 도시에는 나쁜 일을 부추기는 사탄의 유혹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기 쉽다는 것도 아셨죠.

오늘날에도 도시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일에 대한 뉴스를 듣고 있잖아요? 게다가 큰 도시에서는 큰 정원을 가지기도 어렵고 밖에서 놀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해요. 혹시 집이 시골에 있다면 정말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탑을 완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멈추셨을까요? **창세기 11:5-7**을 읽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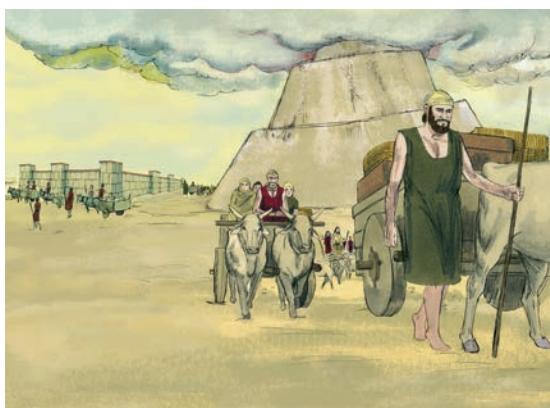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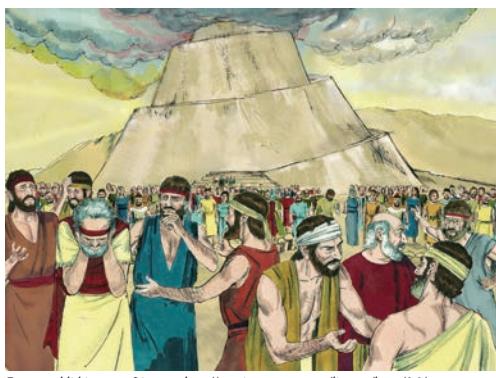
와! 이 얼마나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탑 꼭대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벽돌이 필요해.” 하고 말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아래 사람에게 “물이 필요하다, 물 좀 갖다 줘.” 하고 말하

고, 그 아래 사람은 “저 위에 연장 필요하다. 연장 올려 줘.”하고 말해요. 자, 이런 식이면 일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겠죠? 일꾼들은 화가나서 싸우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만

  
높아질 뿐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 결국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하나 둘 떠나버렸을 거예요. 모두 어리둥절한 채 서로 미친 것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하늘에서 큰 번개가 내리쳐 탑 꼭대기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탑을 자랑할 수 없게 되었어요.

 **생각하기:**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물론 불가능해요. 어린이들은 가끔 자신이 부모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누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유혹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엄마나 아빠와 말싸움을 해 본 적이 있나요?



르기로 선택했어요.



**생각하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국적의 사람들을 한 번 떠올려보세요. 얼마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시나요? 다른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를 보내시고 기뻐하실까요?

## 금요일

**6**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의 몸은 완전했고 그의 키는 현재 성인의 키보다 두 배나 더 컸어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비록 죄로 인해 망가지긴 했지만 아담의 키와 비슷하게 컸고 아담처럼 천년 가까이 살았어요.

하지만 홍수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홍수가 시작될 때에 600살이었어요. 그리고 홍수 후 350년을 더 살았어요! 모두 합하면 몇 살이에요? 맞아요! 노아 할아버지

는 950살까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에는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홍수 이후에는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고기예요. 사실 육식은 사람을 위한 최고의 음식은 아니었지만 몇 가지 종류의 동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예전과 같이 키도 크지 않고 홍수 이전의 사람과 같이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아프고 병든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나쁜 것을 많이 먹고 마셨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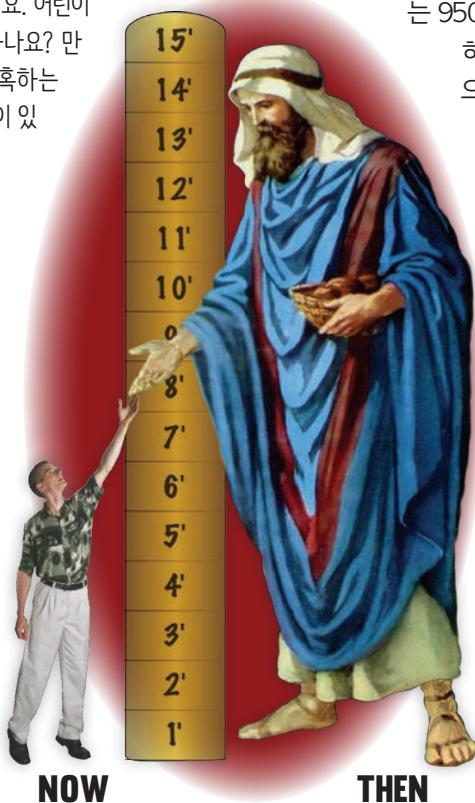
**생각하기:** 사탄은 그의 계획이 하나님 방법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자랑했어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주어요.

## 목요일

**5**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던 곳은 ‘바벨’이라고 불렸어요. 바벨이란 ‘혼잡’ 혹은 ‘섞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게 만드신 거예요. 대체 몇 가지의 언어들이 얼마나 달랐는지는 모르지만, 사탄의 악한 계획이 무산된 것은 분명했어요.

혼란에 빠져 고민하며 집에 돌아간 사람들은 가족끼리는 서로 말이 통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같은 말을 하는 다른 가족들을 알게 되었어요.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짐을 싼 후 아무 소용도 없는 우상을 쟁겨 멀리 다른 곳으로 이주했어요. 이렇게 하여 이 세상에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많은 나라가 생기게 되었답니다. **창세기 11:8, 9**

오직 노아와 셈과 그의 가족만이 방주가 처음 멈추어 섰던 곳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



**더 깊이 알기:** 창세기 11:1-9, 부조와 선지자 10장(영문 p117-124), 살아남는 이들 5장(영문 p72-74),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1권 124-130



## THE STORY CORNER

# “침몰치 않는” 타이타닉호 1

패티 린 구스리의 이야기에서 각색

**원**양 여객선은 많은 사람을 태우고 크고 넓은 대양을 건너는 매우 큰 배에요. 수십 년 전 영국에서 배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주 거대한 원양 여객선을 새로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이 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양 여객선이 될 것이었어요. 또한 이 배는 아무리 무서운 폭풍이 친다해도 가라앉지 않을 만큼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질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배의 이름을 ‘타이타닉’이라고 했어요.

타이타닉호의 내부는 응장한 궁궐과도 같았어요. 마치 값비싼 가구와 휘황찬란한 장식들로 채워진 아름다운 호텔과 같아 말이에요. 배 안에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었고 물장구 치며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도 있었어요. 어른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었고, 게임을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객실 갑판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어요.

마침내 거대한 여객선이 완성되었고, 승객들을 모집해 처음으로 바다를 항해할 여행 준비도 마쳤어요. 여러분이 백 여년 전 4월의 어느 추운 날, 영국의 한 부두에 있었다면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원양 여객선을 보기 위해 몰려왔고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곧 거대한 타이타닉호는 천천히 부두를 떠났어요. 이 배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스미스 선장이 이 멋진 타이타



닉호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여객선에는 2,00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고, 승객과 배를 위해 일하는 많은 일꾼들도 타고 있었어요. 모두가 멋진 여행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곧 승객들은 객실에 자리를 잡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바다에 떠다니는 빙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은 스미스 선장이 빙산에 대해 경고 받은 것은 까맣게 몰랐을 거예요. 예전보다 빙산이 훨씬 많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죠. 빙산은 몹시 위험하답니다. 빙산은 적은 부분만 물 위에 드러나 보여요. 빙산의 대부분은 물 아래에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들은 빙산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부딪히지 않게 빙산을 둘러서 가야 했어요.

영국을 떠난 후 여러 밤이 지났고 이 거대한 배는 잠잠하고 고요한 물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일꾼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었지요. 오직 몇 사람만이 잠을 자지 않고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일꾼 몇몇은 다음 날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날씨는 몹시 추웠어요. 별은 반짝이고 있었지만 달빛은 보이지 않아 몹시 어두운 밤이었어요. 스미스 선장은 선원들에게 빙산이 나타나는 지 주의 깊게 잘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밤 12시가 되기 20분 전, 한 선원이 무엇을 발견하고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어요. “비…비…빙산이 바로 앞에 있어요!” (계속)



**Additional resources:** nature lessons, activities, music, Bible lessons, Scripture memory, and more.

**My Bible First** Copyright © 2015

Phone: 1-877-242-5317

Web: [www.mybiblefirst.org](http://www.mybiblefirst.org) • E-mail: [sales@mybiblefirst.org](mailto:sales@mybiblefirst.org)  
Unless otherwise noted,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NKJV.